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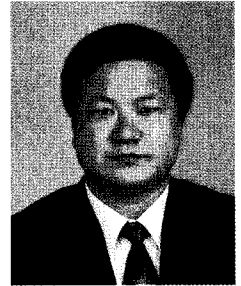
## 서어나무



- ▶ 과명 : 자작나무과
- ▶ 학명 : *Carpinus laxiflora*
- ▶ 한명 : 見風乾
- ▶ 일명 : 아카시데

산림생태계를 연구하는 이들은 서어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식물도 인간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식물들이 모여살면서 나고 죽고 그렇게 변해 가는데 이를 “천이”라고 하며 이는 마지막 단계로 환경에 맞는 식물이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이를 극성상이라고 하고 이 마지막 단계에 오는 나무가 서어나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고 생태적으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라고 판단된다.

서어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나무의 색깔이 매우 다양하고 아름답다. 이른봄 새싹이 틀때면 진한 붉은 빛으로 멀리서 바라보면 봄꽃으로 착각을 일으킬만하다. 여름철 싱그러운 잎은 다른 수종이 따라갈 만한 나무가 그리 많지 않을 듯하고 가을이면 노랑지도 그렇다고 붉은 색도 아닌 두 색깔을 적절히 섞어 놓은 듯한 아름다운 색깔의 단풍으로 온 산을 뒤덮고 낙엽이 진 겨울이면 나무 줄기의 수피는 회색에 검은 얼룩이 섞이고 마치 보디빌더의 근육질 몸매처럼 울퉁불퉁하여 볼만하다.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서어나무



▲ 서어나무



▲ 서어나무

## 1. 생태적 특성

낙엽활엽 큰키나무로 황해도 이남의 표고 100~1,000m에 자생하고 지리적으로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수고 10~15m, 직경 1m까지 자란다. 수피는 회색이며 울퉁불퉁하고 1년생 가지와 겨울눈에 털이 없다. 추위에 강하고 양수로 서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염해에도 강한편으로 해변에서도 잘 자란다. 맹아력은 약하고 대기오염에는 약하여 피해를 받는다.

우리 주변에서 서어나무의 대표적인 숲은 국립수목원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소리봉에 학술림으로 지정된 서어나무숲이다. 그동안 세조 왕의 능이 위치해서 능림으로 보존되어 왔고 일제 시대에는 시험림으로 보존되어 왔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도 겨우 보존되어 온 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천연림이다.

##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옆으로 누워서 자라며 수피는 회색이고 굴곡이 있으며 어린가지는 홍갈색이고 백색 선점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처음에는 붉은 빛이 돌지만 녹색으로 변하며 타원형 또는 달걀형이고 길이 5.5~7.5cm, 넓이 2.5~4.0cm로서 꼬리처럼 길게 뽕족해지며 잎의 아래쪽은 등골거나 심장 비슷하며 가장자리에는 복거치치가 있다. 측

맥은 10~12쌍으로 뒷면 맥위에 잔털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 6~18mm이다. 꽃은 암수 한그루로 잎보다 먼저 피며 수꽃은 밑으로 처지고 각 포에 1개씩 달린다. 암꽃 역시 아래로 처지며 대가 있고 2개씩 달리며 길이 4~8cm, 지름 1.8cm로 한쪽에 결각상의 톱니가 있다. 견과(堅果)는 9~10월에 성숙되며 털이 없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새 잎이 돋을때 진분홍색으로 돌아나 수풀속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보는듯하고 여름의 신록이 싱그러워 아름답고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다. 잎이 지고난 겨울의 돌기는 근육질 몸짱을 보는듯하여 풍치수나 조경수, 녹음수로 식재할만하다.

## 4. 번식법

번식은 10월에 종자를 채취하여 12월중 노천 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많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 5. 그 밖의 용도

목재로 사용이 가능한데 재질이 치밀하고 잘 갈라지지 않아 건축재, 기구재, 농기구자루, 기구재 등으로 활용된다. 